

(사)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2026년 1분기(전남)권역활동 보고서

일 시	2026년 3월 26일(목요일)
장 소	보성 문화원
작 성 자	양경숙
참석자 명단	양경숙, 김남미, 문옥희, 김소담, 허은숙, 정귀례, 신순애
주 제	제1분기 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회의 공유 및 전남권역 캠페인
회의내용 및 회의결과	<p>◇ 제1분기 전남권역 가정폭력상담소 회의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6년 소장단 워크숍 일정 : 9월 10일(목) ~ 9월 11일(금) 진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 많은 참여를 부탁함. - 2026년 9월에 있을 종사자 워크숍 장소가 여수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종사자 워크숍이 여수에서 실시되면 전남 권역에 있는 상담소에서 한명씩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전달을 하니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음. -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하여 현실치료 교육부분에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 권역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함. - 시스템 관리에서 기타상담의 기타항목의 프로그램 삭제에 대한 정보제공. - TF팀 구성 및 활동계획에서 김남미 소장님이 예전에도 TF팀이 구성이 되었으나 활동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함. 문옥희 소장님이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도 가정폭력상담소와 관련된 홍보 영상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. - 시스템 관련에서 통합상담소의 경우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두 번 올리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행정적인 일이 중복이 되니 성평등 가족부가 주도하여 국가에서 시스템을 제작해서 행정적인 일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. - 상담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많기에 국가에서 통합해서 2중, 3중의 안전관리를 만들어 국가 통계로 만들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. - 성평등가족부가 되었으나 아직도 지자체에서는 양성평등을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함. - 5월에 시작되는 친밀관계폭력 피해자지원 공동모니터링 진행에 따른 정책토론에 대한 일정에 대한 공유함. - 전남권역에서 함께 하는 캠페인 관련하여 상담소가 없는 섬지역에서 민관이 함께 하는 캠페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함. 일정은 6월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나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함. - 남양주사건으로 인하여 전남권역 소장님들은 모두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연대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함. 찬성과 반대의 퍼센트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. 남양주 사건의 기자회견은 간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피해자를 위한 연대는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.

사진



새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
National Association of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